

Sermon Notes:

서론: 바꾸어야 할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

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(눅 17:20-21, 눅 11:20, 롬 14:17)

Already but not yet (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님)

본론: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

1.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들

가. 씨: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(항상 말씀이 아님)

나. 뿌린 사람: 집주인, 인자, (예수님, 세상의 주인 되심)

다. 가라지: 주인의 원수의 악한 아들들 (마귀의 추종세력)

2. 가라지의 특성

가. 위장성: 고후 11:13-15,

나. 잠복성

다. 독성: ‘가짜 밀’로서 나쁜 증상들

3.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신 이유들

4. 이 비유가 주는 교훈

가. 하나님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.

알곡에 가라지가 섞여 있음

나.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.

밤을 조심-> 영적전쟁 (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기도)

다.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.

예수님의 지상 대명령: 제자 삼으라. 잃어버린 양 비유

사도 바울의 고백 (고전 9:16), 권면 (딤후 4:2)

결론: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려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녀가 되십시오!

암송구절: 마태복음 13 장 30 절

‘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, 추수 때에 내가 추숫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’

메모:

1. 나는 알곡이라는 확신이 있는가?

2.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? 깨어 있는가?

3. 나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?